

# “절에 핀 벚꽃보니 소녀된 기분”

## 나눔의 집 할머니들 금산사 순례 “불심심는 기회” 비구니회서 주최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정성스님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사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금산사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4월21일 마련한 사찰순례 행사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된 것이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광버스에 올라탄 6명의 할머니들은 모처럼 만의 바깥세상 구경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 4시간 달려 버스가 도착한 곳은 미륵성지인 김제 금산사.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마친 할머니들은 주지실로 안내됐다.

이자리에서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금산사는 전국에서 국보와 보물이 가장 많은 미륵성지”라며 “미래를 위한 미륵보살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는 평소 애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고 말하자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다.

다담(茶談)이 끝나자 할머니들은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정성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 보았다. 특히 중국에서 3개월 전에 온 문명금할머니(84)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돈독한 불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참배객들 중에는 멀리서 할머니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반갑게 손을 잡아 주는 이도 눈에 띄었다.

박옥련할머니(78)는 “사찰경내에 곁에 피어있는 벚꽃을 보니 소녀가 된 기분”이라며 “부처님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길 빌었다”고 즐거워했다. 할머니들은 짧은 일정의 순례가 아쉬운 듯 차갑게 느껴지는 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정덕스님은 “얼마전 TV에서 사찰린 동포들이 사찰 방문하는 것을 보고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교계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21세기 새 여성상

- 정치적인 대표자력
- 경제적인 풍요로움
- 폭력거부 · 정보침술
- 생명 환경 보호 앞장
- 각양각색 문화 향유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모주)는 4월 21~22일 해인사에서 ‘새로운 세기의 동반자-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여성불자지도자 양성 연수교육을 가졌다.

전국 10개지부 및 2개지회에서 25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건국대 이영애 교수가 ‘21세기 새천년 새로운 환경과 여성’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성 △폭력을 거부하는 여성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여성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등을 여성들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여불련 활동의 경과보고 및 평가회도 열렸다.

도필선 기자

##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④ 오세창의 개운사 · 봉은사 편액



위창 오세창(1864-1953)은 중국 역관이며 개화사상가였던 역관(柳梅) 오경석(吳慶錫)의 아들이다. 서울 개운사(대웅전) 편액은 본래 대각루 앞쪽에 자리하던 예전의 대웅전에 걸렸던 것을 증축하면서 옮겨 건 것으로 현재의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02년 개회당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던 중 손병희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문하였고 만해 한용운 등과도 교류(交遊)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그의 글씨이다.

서울 개운사(대웅전) 편액은 본래 대각루 앞쪽에 자리하던 예전의 대웅전에 걸렸던 것을 증축하면서 옮겨 건 것으로 현재의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02년 개회당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던 중 손병희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문하였고 만해 한용운 등과도 교류(交遊)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

## 건강백과

### 봄철 피부관리 요령

시내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한낮이면 시내 중심가에 민소매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이 눈에 많이 띈다.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하고픈 여성들에게는 생기가 되는 계절이다. 하지만 피부질환으로 인해 외출이 두려운 여성들도 있다. 봄철을 맞아 손상되기 쉬운 피부관리 요령과 피부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 1) 피부질환**  
봄은 피부를 피곤하게 한다. 황사 등 각종 먼지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이다. 또 햇빛의 자외선은 주름살과 각종 잡티를 만든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돼 지성(脂性) 피부가 되기 쉬운 탓이다. 피부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외출할 때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만약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면 레이저 치료와 미백연고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 2) 액취증**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외출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불쾌한 냄새의 주범은 바로 액취증. 피부 밑 지방층의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진하고 끈적끈적한 땀을 겨드랑이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증상이다. 환풍제가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거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해 땀이 고이는 것을 막으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
- 3) 피부관리**  
첫째, 청결을 유지한다. 체온 후 철저한 클렌징과 함께 영양 공급으로 피부의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하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자외선을 조심한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 간단한 샤워 정도가 바람직하며, 목욕 후엔 수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취한다.

## 5일은 신나는 어린이날

### “푸른꿈 키워라” 다양한 행사

교계단체 백일장 · 민요축제 · 만화영화 등 준비



사진은 지난해 목아박물관에서 열렸던 부처님그리기대회.

어린이 날을 맞아 교계 단체에서는 4, 5일 양일간 새싹불자들을 위한 백일장, 민요축제공연, 그림 그리기 대회, 놀이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불교교단소녀연합회 · 무용단이 5일 저녁 7시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봄축의 노래와 세계 민요 축제’, 3부로 나눠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부처님 계신 나라’ ‘절에 갔었네’ 등의 불교동요를 비롯해 화관무, 소고춤, 살풀이 등이 선보인다. 또 미국,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8개국의 민요와 민속 무용이 공연될 예정이어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 (02)725-7527

일단 ‘불광’과 ‘여주목아박물관’은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목아박물관에서 제6회 전국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됩시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그리기 외에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 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0337)885-9952

부천 덕유사회복지관에서는 4일 덕유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그리 보는 세상’을 주제로 ‘꿈꾸는대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놀이 마당을 펼친다. 이어 오후에는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032)325-2161

이외에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생태환경 그림 그리기대회와 백일장, 놀이마당 등으로 꾸민 ‘새천년 어린이큰잔치’를 5일 신도림가로공원에서 개최한다. (02)838-5627

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일 ‘만화축제’가 열린다. (02)2282-1100

## 새상품 성문화 '자비로'

가볍고 미끄럼 방지



등산화 전문업체인 ‘트렉스타’가 사찰을 찾는 여성불자들에게 착화감이 뛰어난 성문화 ‘자비로’(사진)를 새상품으로 출시했다.

천연가죽 뉴백을 원료로 만든 이 제품은 하이퍼그립을 사용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며, 접지력이 탁월한 게 특징이다.

또 통기성을 고려해 고급삼베를 신발 바닥에 깔아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수 방수처리해 눈비에 강한 장점도 있다. 가볍고 편안해서 사찰 순례나 가벼운 산행에도 적합하다.

크기는 225mm~245mm로 여성용만 나왔다. 가격은 6만 9천원. (051)309-3663

## 대웅전 굳세고 온아함 엿보는 해서체

선종감찰 대도량 청나라 풍 전서로 단아한 멋

람으로 활약하다 육고를 치르기도 했다.

위창은 근대 미술가 단체의 효시인 한국서회학회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제일가는 전각가였으며, 전서와 예서를 잘 썼던 서화가였다. 또한 그는 뛰어난 안목을 지닌 서화 감식가로 부친과 자신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근역서화집>, <근묵>등을 저술하여 한국서화사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개운사(대웅전), 서울 봉은사(선종감찰대도량), 서울 흥천사(종각), 장성 백양사(사천왕문), 부산 범어사(범어사), 진주 의곡사(비룡산의곡사), 선산 도리사(태조선원), 편액 등이 걸려 있다.

인병인(대한불교진흥원)

## “스타선수와 함께 운동 배워요”

월곡청소년센터 방과후교실

월곡청소년센터는 4월29일 장외중학교 운동장에서 스포츠 스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함께하는 사람들’을 1일 강사로 초청, 방과후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재근(육상), 장운창(배구) 등 10여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탁구, 농구, 축구를 지도했다. 또 ‘팀빌 릴레이’와 ‘세발뛰기’ 게임도 즐겼다.

## 주부신행담

### 생활속에 있는 불법

경 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지루한 작아지고 움츠러들려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마음선원 주인공을 꼭 붙잡게 되었다. 관하는 것도 모르던 나에게 선원 스님들은 그저 믿고 맡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처음엔 어렵고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은 나는 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 선원을 갔다. 그래야 좋다는 보살님들 말씀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3월부터 6월까지의 날마다 관하는 법이 늘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선원을 다녔다. 남편은 왜 가까운 절 두고 아이들 태우고 울리면서 꼭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 말했다. 시어머니도 한 절만 꾸준히 다니지 이 절 저 절 돌아 다닌다고 나무라셨다. 시댁 친척 형님들은 너무 절에 빠져서 다니면 안된다고 불려다가 언저리 충고까지 하셨다.

그래도 내겐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시어머니와의 갈등, 아이들에 대한 집착,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내 것인양 애착을 떼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런 데 지역법회에서 혜성스님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감사해하며 선원을 다녔는데 7월부터 3개월간 방학을 하게 됐다. 내겐 3개월이란 기간이 너무도 길었고 또 법회에서 스님을 만날 수 없어 서운했다. 스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달아 보자 생각과 나름대로 불법수행에 들어갔다.

우선 대행스님을 친견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아직까지 일요일 법회에는 참석해 보지 못했던 때였다. 아침 7시 절에 갔더니 벌써 법당이 꽉 차 있었다. 맨 뒤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혜성스님이 오셔서 내가 앉은 줄 앞에서부터 내려가라고 하셨다. 다른 보살들은 화가 나서 그냥 갔지만 난 “그래 늦은 것을 인정하자고 편하게 마음 먹었다. 순순히 마음을 돌리고 방석을 정리하고 아래 3층으로 갔다. 그곳에서 비디오투로 큰스님 법회를 참석했다. 새 법당을 짓고 처음 보는 비디오 법회라 너무 좋았다. 모두들 큰스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불가를 들을 때는 환희심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꼭 대행스님을 친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밤 10시가 지나서 선원에 도착해 법당에서 밤을 새웠다. 처음 해보는 칠야기도였지만 나름대로 차례를 만들어서 기도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좌선하고 휴식하고, <마음의 불세> 책을 읽고 좌선하고 휴식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듣기만 해서 안되고 생활에서,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래 스님 말씀대로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자. 기록신앙이 아닌 제대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가 되자”고 다짐하고 나니 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후부터 나의 체험은 신기하리만큼 계속되었다.

남편은 직업상 담배를 하루에 두갑씩 피웠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노래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종래로 만났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믿고 만나 결혼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위해 잠깐 끊었다가 다시 피운 것이었다. 세상에 하루에 한갑도 아닌 두갑씩이나 피

워대는 남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성화를 부리다가 결국 내가 포기했다. 그래도 집에서는 별로 피우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만 피우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날 내게 “나 뭐 달라진 것 없어”하고 물었다.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뭐라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배도 나오고 숨도 차고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다.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인공’ 그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 나왔다. 이제

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러기를 몇 년, 결국 집을 떠나서 거의 가장부처처럼 살게 됐다. 그렇게 돈을 모아 남동생 고등학교 공부를 다 시켰고 여동생의 미용실 학원비에 특강비도 모두 뒷바라지했다. 큰 남동생은 삼남에 있는 직업훈련소가 지 보내서 기술을 익히게 했다. 방황하고 다니던 막내는 내가 데리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나 보고 그렇게 동생들 끼고 살아가도 이 다음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나는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헌신적으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세월이 어떤 16년. 지금은 모두들 시집 장가까지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MF라고 해서 모두들 살기 어렵고 힘이 든다고 TV에서 아우성이지만 다행히 저마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동생들은 잘 지낸다. 처음엔 커다란 멍에가 내게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돈없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경제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면서도 난 함고 또 참았다. 새어머니는 아이들 두고 나와서 혼자 살라고 했다. 내가 어디가 못나서 그런데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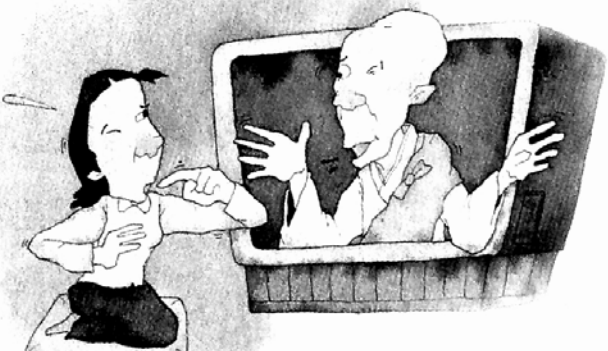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말씀하셨을 때 난 아이들을 절대로 아프게 할 수 없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더욱 더 아이들 때문이라도 남편과 절대로 싫은 소리 안하고 하루하루를 넘겼다. 유년시절 아빠와 새엄마가 싸우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던 기억들을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결국 내가 아니 주인공이 승리하였다. 지금은 형편이 많이 편 것은 아니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때 주인공이 바르게 판단했기에 모두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요즘 집근처 절로 새벽예불을 드리러 다니는데 30분을 걸어서 가고 오면서 자성분배불을 찾고 있다.

이젠 스스로의 방법이 있기에 당당하게 잘 지낸다. 누굴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성하고 누굴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화보다 웃음이 난다. 요즘 나는 작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당쓸기, 아이들 돌보기, 시어머니께 얼굴 안 찡그리기, 남편 내조 잘하기 등 모든 것이 다 한생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정진하고 있다.

조경숙(서울 양천구 목동)